

반 송 월 보

1985. 11. 3

제 8 호

솔^러티

발행 : 반송동천 주교회

【창원시반송동 10-6】

T. 82-0985. 3012

주임신부 : 이은진 (도미니코)

원장수녀 : 은호노라다

위령성월

죽음을 잘 준비하자

여형구

“내 죽음아! 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마 전 저는 그렇게 살려 했던 한 암환자의 장례를 지낸적이 있었습니다. 이 40대 중반의 남자는 병중에 세례를 받았고 자주 성체를 영하다가 병자성사를 받고 얼마쯤 있다가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백성사를 줄 때 “죽음이 아주 두렵고 무섭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환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죽으면 안됩니다. 집안 사정도 그렇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너무 불쌍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오면서도 죽음을 자신과는 멀게 생각하며, 자신이 벌여놓은 일들은 자기라야만 해결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에 대한 집착 끝에 죽음을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데리고 집단자살을 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열키고 설킨 사정이 있고 잘잘못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상의 사건이 현실에서의 도피로 죽음을 택한 경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현실과 직결되는 데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인 우리에게도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그리스도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산야서 53장을 보면 8절에서 그리스도는 “우

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라는 말씀이, 12절에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 해주기 위한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환자의 죽음이나 고통중에 있는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한 부인의 죽음이나 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생각에서 저지른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은 생각지 않고 오직 인류를 위한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시기 위한”(로마 4, 25) 죽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도사목을 하던 몇년전에 경험한 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직도 제 가슴에 켜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신앙에 열심하던 김 보니파시오라는 죄수의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파시오는 문산에 살던 절도범 두목이었는데 부하들이 마취약을 사용해서 절도를 하다가 그만 한가족을 독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의적으로 당연히 두목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적인 책임은 별로 없는데, 그는 부하들을 싸준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했노라고 자백했습니다.

사형집행을 받기 위해 교도관들과 함께 가는 그를 만났습니다. 걱정스런 내 얼굴을 보더니, 그는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백한, 입술까지 붉은 색이라곤 전혀 없는 그 얼굴에서 어떻게 이런 차분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며 나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집행 순간도 어느 사형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으니 오늘 받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부모

님께 자식된 도리 다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하며 둘러서 있던 교도관들과 검사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역시 다르구나, 천주교회의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참 신앙은 향기를 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사형수였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과 준비를 했고 훌륭하게 죽은 죽음이었다고 나는 자주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우리도 누구나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죽음!

죽음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만나는 관문이라면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꿀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원간 닥쳐올 내 죽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 모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향잡지에서 발췌＝

10월 <전 입자>

김윤숙	아네스	현대 APT
박미숙	〃	반송 APT
옥봉금	안또니아	반지동
정복희	실비아	명곡 APT
김순옥	데레사	중앙동
권현주	바오로	〃

10월 <전 출자>

하철임	지나	하동
김숙자	루시아	서울
염규식	레오	서울
강관희	야고버	대구
김세기	니콜라오	서울
유점순	크리스티나	부산
이석필	다니엘	부산
박현규	유스티노	양덕

소식란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연옥 영혼을 위한 많은기도 바랍니다.

11월 1일 - 8일까지 묘지방문 기도하면 연옥영혼에 양보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원 4개 본당체육대회

지난 10월 13일 남산국민교 교정서 벌어진 4개 본당체육대회는 주최측 가음정보당의 열성적인 준비와 진행에 힘입어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우리 본당이 종합우승 응원상을 획득하였음, 앞으로의 행사에 더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 교구 주일학교 교리경시대회

교구교육국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서 본당이 단체 1위와 4학년 1,4,5위를 획득, 주일학교에 격려의 박수갈채

▲ 가정 방문

10월부터 실시중인 가정방문은 11월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중앙동, 외동, 내동, 주택지는 가정방문 원하는 가정은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테니스대회

11월 10일 낮미사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 복식(참가비 5,000원)

▲ 본당 배구대회(신청;사무실)

11월 17일 낮미사후 각 신심단체 대항
▲ 김홍진(마태오) 교육부장이 서울로 전출
본당에 전례용 종을 기증해 주셨음

▲ 첫 영성체 교리반 개강

11월 4일부터 개강 매주 화, 수, 목, 금, 오후 교리반 실시함.

국민학교 3년이상 신자 자녀의 첫 영성체자 영세대상자

▲ 반장회의 11월 6일 오전 10:00 본당에서 반장회의가 있습니다.

※ 미사시간을 엄수합니다.

▲ 11월 10일 청년회 주최 로사리오 연극을 유치원 큰 교실에서 가지게 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11 월) 행사표

위 령 성 월

일	요일	축 일	행 사	비 고
1	금	모든 성인의날 대축일	가정방문 4 구 1 반 (두대, 대원)	
2	토	위령의 날	미사AM10시 PM7시 30분	청소 1 구 7,8 반
3	일	연중 제 31 주일	연령회 피정 (12시 - 15시)	
4	월	카를로 보르메오 주교	첫 영성체 교리반 시작	
5	화	김루치아 순교자	가정방문 1 구 5,6 제대회 모임 10시	
6	수	레오나르도 은수자	" 1 구 7,8 반장회의 10시	
7	목	마리아 도미니카 동정	" 1 구 1,2 사무장연수 (교구청 7,8일 10:30)	
8	금		" 4 구 3,4 (대원, 쌍용, 동양, 종합기계 Apt)	
9	토		바자회 (여성연합회, 교구청, 9 - 11), 유아영세식 (19시)	청소 1 구 9,10반
10	일	연중 제 32 주일	청년회 연극 (낮미사후), 청년회 정기총회	주교님 출국 Ad, L imina Roma 로
11	월	성마르티노 주교기념	단체 지도신부 연석회의 (교구청 10시 30 분) 수녀 연합회 총회	
12	화	성요사팻주교 순교자 기념	농민회 추수감사제, 농민대회 (대 산본당 11:00)	
13	수	스파저슬라오 증거자	가정방문 2 구 1,2 반	
14	목		" 5 구 4 (명곡 25 - 70동)	
15	금	성 알베르토 주교학자 기념	" 5 구 1,2,3 (지귀, 봉림, 명곡 1 - 24동)	
16	토	마르가리타 젤뚜르다 성녀	평협연수회 및 정기총회 (16,17 일)	
17	일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주일)	신심단체대향 배구대회 (낮미사후)	청소 2 구 1,2반
18	월	성베드로, 바오로 대성전 축성기념		
19	화	뿐시아노 교황		
20	수		가정방문 중양동지역	
21	목		" 외동, 내동, 기타 지역	
22	금	성녀 체칠리아 동정순교		
23	토	클레멘스 1 세교황		
24	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청소 1 구 3,4반
25	월	연중 제 34 주간 월요일	돌아가신 교구 성직자를 위한 합동 위령미사 (11:00) 사제 총회	
26	화	실베스텔 원장	마사다 영화상영 (종교 Video) 저녁미사후	
27	수	유체칠리아 순교자	"	
28	목	야고버 증거자		
29	금			
30	토	성 안드레아 사도축일		" 2 구 5, 6반



반기도회 일정



구역반	일정	장소	비고
1 - 3	12 일 오후 2 시	권영소 (안드레아)	16 동 105 호
1 - 4	15 일 오후 2 시	임철규 (펠릭스)	23 동 404
1 - 5	17 일	문효진 (요셉)	
1 - 7	11 일	지영섭 (베드로)	
2 - 2	13 일	주루시아	114-301
2 - 4	14 일 오전 10 시	문경자 (요안나)	5-203
4 - 3	12 일	최세시리아	대원 Apt, 나동 404
4 - 4	15 일	김옥란 (베로니카)	
5 - 3	13 일 오후 8 시	문충남 (모이세)	18 동 506 호
5 - 4	12 일 //	박윤배 (세바스티아노)	명곡 Apt 27 동 301 호

11월중 전례 해설및 독서자

일자	해설	1 독서	2 독서
3	주 현기권 (원선시오)	임주신 (요한)	정윤남 (수산나)
	야 박병철 (베드로)	차상섭 (펠릭스)	정선배 (루시아)
10	주 이갑철 (분도)	최정호 (도미니코)	김진자 (안나)
	야 양광남 (요한)	송규승 (프란치스코)	송영미 (테레사)
.17	주 정동화 (토마스)	이복원 (비오)	안영순 (안나)
	야 안경립 (에드워드)	윤장균 (요셉)	오선자 (마꼬리나)
24	주 이성재 (프란치스코)	진형찬 (가누노)	김은숙 (아네스)
	야 전영태 (엠마누엘)	이규현 (안드레아)	김경희 (로사)